

전문대학생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의 특성 분석 -K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Good Teaching Perceived by Junior College Student :Based on a Case Study of K College

최석현

경남정보대학교 경영계열

Seok-Hyun Choi(choish@eagle.kit.ac.kr)

요약

각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최근 수강했던 과목들 중에서 다시 듣고 싶은 좋은 수업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를 에세이 형태로 공모전을 매년 실시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문역량 개발에 기여하는 좋은 강의를 발굴하여 수업노하우를 확산하고 ‘좋은 수업’이란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75편의 에세이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의 특성을 키워드 추출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대학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 특성은 ‘교수자의 열정이 느껴지는 수업’, ‘흥미로운 수업’, ‘강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 ‘학생들을 배려하는 수업’,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 ‘교수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업’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전문대학생 | 좋은 수업 | 좋은 수업의 특성 |

Abstract

Universities are increasing every year, supporting the university's teaching and learning center, among subjects which recently retake a good teaching or the most memorable teaching through an essay competitions. Thi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tudents' academic skills taught a good teaching know-how to identify and spread the 'good teaching' what has provided opportunity to look back.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good teaching, as perceived by Junior College students. We did content analysis to elicit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or from qualitative comments of 75 college essay competitions. According to the content analysis, the most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good teaching as perceived by Junior College students are the following: 1. the professor's enthusiasm for teaching; 2. students' interest for teaching; 3. providing clear explanation; 4. caring professors; 5. good communication with students; 6. sharing professor's experiences.

■ keyword : | Junior College Student | Good Teaching | Characteristics of Good Teaching |

* 본 연구는 한국콘텐츠학회 JCCC 2013 학술대회 발표논문 “학습자가 원하는 교수자 특성 분석”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접수일자 : 2014년 05월 07일

수정일자 : 2014년 06월 09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6월 12일

교신저자 : 최석현, e-mail : choish@eagle.kit.ac.kr

I. 서론

최근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써 주목 받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전통적 강의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 및 수준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을 시도함으로써 직업교육의 특성을 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1].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입학생의 일반적 특징 중 입학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전(6.2%)이나 고등학교 1, 2학년(16.3%)이 아닌 고등학교 3학년(48.6%)이나 원서교부 기간(21.5%)에 전공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선택 동기에 있어서는 취업 전망 또는 자격증 취득(33.5%)을 고려하며 본인 스스로의 결정(43.1%)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많은 전문대학 신입생들이 직업에 대한 정보나 졸업 후 미래에 대한 확신없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취업 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함을 다시 말하면 전공에 대한 준비나 자신감 없이 대학생활을 시작함을 알 수 있게 한다[2]. 이와 같은 결과는 전문대학 입학 후 학습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학습동기와 자존감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학습동기 부여 및 자존감 고취는 대학 학업수행에 중요한 동인이다. 따라서 학습부진 학생들이 스스로를 능력있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생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며 학습전략을 실행한 뒤 스스로 결과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구성하는 방법이다[3]. 따라서, 전공에 대한 준비나 자신감 없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전문대학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 높은 수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들어 각 대학의 교수학습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문역량 개발에 기여하는 좋은 강의를 발굴하여 수업노하우를 확산하고 ‘좋은 수

업’이란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근 수강했던 과목들 중에서 다시 듣고 싶은 좋은 수업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를 에세이 형태로 공모전을 매년 실시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좋은 수업’에 대한 선행연구가 일반대학을 위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전문대학에 대한 ‘좋은 수업’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대학 수업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교수자에게 교수법 특강이나 전문교육기관 연수과정 등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어떤 강의가 좋은 수업인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 일선 교육현장에서 ‘좋은 수업’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 교육에서 수업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문대학의 좋은 수업의 특성이 학습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수업현장에서, 특히 전문대학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의 특징을 밝히고 선행 연구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좋은 수업의 의미

대학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학습자들을 잘 가르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무성을 수행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최근 들어 ‘잘 가르치는 일’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4]. 최근 들어 대학 교육력 향상을 위해 수업역량 및 학습력 제고를 위한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좋은 수업의 요건이나 준거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좋은 수업’이란 그 수업의 수준과 질이 다른 것보다 보통 이상으로 더 높아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만족스럽고 흡족하며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수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업이 어떤 수업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

은 수업'에 대한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좋은 수업'의 본질적인 특성을 찾아서 정의를 내리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좋은'의 의미는 판단 주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회·문화 집단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서로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좋은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좋은 수업'을 일컫는 용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수업', '이상적인 수업', '우수한 수업', '훌륭한 수업', '효율적인 수업', '효과적인 수업', 영어로는 'good teaching', 'best teaching', 'effective teaching', 'best practice', 'effective practice', 'good practice', 'good instruction' 등으로,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다르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좋은 수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며, 그만큼 좋은 수업에 대한 의미가 다양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좋은 수업의 의미는 개인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5]. 또한, 모든 수업상황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업모형이나 수업기법은 없으며, 교육내용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인 것으로 주장되기도 하는 등 학자들 간에 통일된 의견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6].

한편, 좋은 수업의 특성은 유능한 교수자의 핵심 특성과 효과적인 교수 행동과도 연결되어 있다. 유능한 교수의 핵심 특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덟 가지 요소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가장 중요한 요소 순으로 나열하면 학생들을 위한 배려, 수업내용에 대한 지식, 흥미(동기)유발,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함, 토론을 장려함, 명확하게 설명하는 능력, 열의, 준비 순이다[7]. Borich(1990)는 효과적인 교수 행동을 10가지로 도출하였다. 수업내용의 명료성, 수업의 다양성, 학업지향적인 태도, 수업에 몰두시키기, 학업성공률 높이기, 학생의 의견을 수업에 활용하기, 수업의 구조화, 질문하기,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기, 교사의 열성과 같은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8].

따라서, 좋은 수업이란 수업환경, 교육내용과 학습자의 특성 등에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

나 대체적으로 교수자 관점에서는 가르칠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고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다양한 수업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업이며, 학습자 관점에서는 학습자가 수업에서 흥미를 느끼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해 주며,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충실한 상호작용이 일어나 교수·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수업이라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주로 좋은 수업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이론적 수준의 논의에 그치거나 수업의 기술적, 방법적 측면에서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연구대상 또한 4년제 일반대학 위주의 좋은 수업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수업에 대한 전문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 실제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이 좋은 수업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례 중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우수강의의 에세이 분석 논문 4편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주관식 강의평가 논문 1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표 1.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좋은 수업의 특성
이은화·김희용 (2008)	1. 학습동기유발 2. 학습활동에의 직접 참여 3. 충실한 피드백과 평가의 공정성
박민정 (2008)	1. 학생들에게 지적·정서적 만족을 주는 수업 2. 학생들의 변화와 성숙을 일으킨 수업 3.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들 상호간의 참여와 소통이 있는 수업 4.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업
윤소정의 (2009)	1. 수업을 통한 인식의 전환 2. 효과적인 수업 방법 3. 교수자의 열정 4. 자유로운 의사소통
김수연 (2011)	1. 몰입할 수 있는 수업 2. 공정한 평가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수업 3.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 4. 교수자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수업
정지현 (2013)	1. 이해하기 쉽게 진행 2. 학습내용이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함 3. 실용적인 사례위주의 발표수업 4.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느낌을 받는 수업

이은화·김희용(2008)은 106편의 수업 에세이에 대하여 주제별 약호화 방법을 이용하여 내용 분석한 결과, 한국 대학생들에게 있어 좋은 대학수업은 학습동기 유발, 학습활동에의 직접 참여, 충실한 피드백과 평가의 공정성의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9].

박민정(2008)은 수업 에세이 38편을 분석한 결과,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의 의미는 첫째, 학생들에게 지적·정서적 만족을 주는 수업, 둘째, 학생들의 변화와 성숙을 일으킨 수업, 셋째,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들 상호간의 참여와 소통이 있는 수업, 넷째, 학습내용에 따른 수업방법의 활용, 교수의 철저한 수업 준비와 열정, 실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 제시가 포함된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업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10].

윤소정·이유나·이상수(2009)는 우수 에세이 80편을 대상으로 의미단위 내용분석 결과, 학생들은 수업을 통한 인식의 전환, 효과적인 수업방법, 교수자의 열정,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좋은 수업의 주된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김수연(2011)은 학생들의 주관식 강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 전문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의 의미는 첫째, 몰입할 수 있는 수업(현장 경험과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수업, 수업과 연관된 과제가 있는 수업, 눈과 귀가 즐거운 수업), 둘째, 공정한 평가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수업, 셋째,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 넷째, 교수자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수업으로 분류하였다[12].

장지현(2013)은 우수강의 에세이 99건에 대해 네트워크 텍스트분석을 사용하여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 ‘우수한 강의’의 구성요소를 도출한 결과, 첫째, 수업의 내용면에서 이해하기 쉽게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 둘째, 수업방식 면에서는 학습내용이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서로 소통하는 수업, 셋째, 실용적인 사례위주의 발표수업, 넷째,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느낌을 받는 수업을 우수강의로 인식하고 있다[13].

이상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좋은 수업’의 특성은 교수자와 학습자간 소통이나 상호작용[6][10][11][12], 교수자의 열정[11][12], 강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수업[6][10], 평가의 공정성[9][12]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차이점으로는 전문대학은 현장 경험과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III. 연구 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의 특성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K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매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시 듣고 싶은 강의 에세이 ‘이런 강의가 좋아요.’”에 응모하여 수상한 학생들의 에세이 75편을 분석하였다.

수상한 학생들을 소속 계열별로 분류해 보면, 인문사회계열이 32편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과학이 25편, 공학이 17편, 예체능이 1편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41명, 1학년 25명, 3학년 9명,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28명, 여자가 47명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 변인별 분포도

(n=75)

구분		빈도(명)	비율(%)
계열	인문사회	32	42.7
	자연과학	25	33.3
	공학	17	22.7
	예체능	1	1.3
학년	1학년	25	33.3
	2학년	41	54.7
	3학년	9	12.0
성별	남자	28	37.3
	여자	47	62.7

2.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양적 연구방법이 가설로부터 시작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내용분석 방법은 비구조화된 탐구대상 자료가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의 특성을 특정한 분석 준거나 관점에 근거하여 해석함으로써 자료의 특성을 체계적,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이다[14]. 내용분석을 위한 단위(준거)로는 단어, 주제, 인물, 문단, 항목, 개념, 의미 등이 일반적으로 쓰이는데[15],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에세이에서 단어와 의미를 준거로 하였다.

다시 듣고 싶은 강의에서 좋은 수업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된 75편의 에세이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에세이에 쓰여진 10가지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키워드를 대상으로 각 항목별 의미가 유사한 것은 서로 통합하고, 해당 건수가 10건 미만인 키워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10건 이상인 키워드를 대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표 3]과 같이 6종류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표 3. 다시듣고 싶은 강의에세이 핵심어 요약

핵심어	주요 내용
열정	수업에 대한 교수님의 열정, 열정적인 강의, 남다른 열의와 열정, 열정과 자신감
흥미	재미, 흥겨움, 즐거움, 흥미유발, 즐거운 수업, 웃음으로 수업, 유머와 재치,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
이해	쉽게 가르치기, 이해도를 높임, 이해하기 쉬운 사례 적용, 이해하기 쉽게 설명
배려	세심한 배려, 학생들에게 시간과 기회 주기, 학생들을 위한 배려, 제자를 향한 섬세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 칭찬의 말씀, 격려
상호 작용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상호신뢰감 형성, 피드백, 쌍방향적 강의 방식, 소통, 함께 함, 양방향 교육 방식
교수자 경험담	교수님의 경험담(인생, 성공기, 교훈, 여행 등), 임상경험, 실무경험

IV. 연구 결과

1. 좋은 수업의 특징

우수강의 에세이 총 75편을 분석한 결과 전문대학생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은 [표 4]와 같이 6개의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전문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의 특성은 ‘교수자의 열정이 느껴지는 수업’(n=50, 66.7%), ‘흥미로운 수업’(n=47, 62.7%), ‘강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n=39, 52%), ‘학생들을 배려하는 수업’(n=33, 44%),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n=30,

40%), ‘교수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업’(n=14, 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는 ‘교수자의 열정이 느껴지는 수업’(n=23, 46%), ‘흥미로운 수업’(n=20, 42.6%),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n=14, 46.7%)을, 자연과학은 ‘강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n=18, 46.2%), ‘학생들을 배려하는 수업’(n=14, 46.7%)을 가장 선호하는 수업의 특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좋은 수업의 특성

범주	계열별 에세이수(%)*				범주별 빈도 평균**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열정	23 (46.0)	14 (28.0)	12 (24.0)	1 (2.0)	50 (66.7)
흥미	20 (42.6)	16 (34.0)	11 (23.4)		47 (62.7)
이해	14 (35.9)	18 (46.2)	7 (17.9)		39 (52.0)
배려	12 (36.4)	14 (42.4)	6 (18.2)	1 (3.0)	33 (44.0)
상호 작용	14 (46.7)	10 (33.3)	6 (20.0)		30 (40.0)
교수자 경험담	5 (35.7)	5 (35.7)	3 (21.4)	1 (7.1)	14 (18.7)

*에세이 수는 각 범주 요인이 나타난 에세이 수를 말함

**범주별로 요인 수가 달라 범주 내 전체 빈도(75편)를 요인 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다른 범주와 비교를 가능하게 한 평균 빈도와 비율을 의미함

2. 각 범주에 따른 요인별 분석

2.1 교수자의 열정이 느껴지는 수업

교수자의 수업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는 전문대학생이 좋은 강의라고 판단하는 제1의 기준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Sass(1989)는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주는 요인으로 교수자의 열정, 내용의 적절성, 강좌의 체계적인 조직성, 적절한 수업 난이도, 교수자와 학습자의 친밀감 형성, 적절하고 구체적이고 이해 가능한 사례의 활용 등 8가지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6].

교수자의 열정은 선행연구[11][12]에서도 좋은 수업의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교수자가 얼마나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했는가는 수업에서의 동기유발에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교수자의 열정이 느껴지는 수업은 교수자의 효과적인 수업 태도 및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건으로써 가르칠 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 수업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한 강의 자료 준비와 수업시간 준수라는 의견도 있었다.

“언제나 수업을 하실 때 다양한 색채를 갖고 계시고 열정으로 가득 찬 교수님의 수업 덕분에 아직까지도 새록새록 기억에 남만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학습자 A

“수업준비를 많이 해 오시는 교수님의 수업이 좋습니다. 수업준비를 철저히 해 오시는 교수님들의 공통점은 열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라도 학생들에게 더 보여주고 이해시켜 주시려고 매주 주말을 활용하여 최신 강의 자료를 준비해 오시는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 앞에서 어찌 수업을 소홀히 임할 수 있을까해서 저희도 모르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학습자 B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강의를 하러 들어오시는 교수님을 보니 눈의 흰자위가 완벽한 빨간색이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몇몇 학생들이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지난 주말에 노동을 했는데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그렇다고 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강의를 이어나갈 상황이 아니었다.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열정은 변함없었지만 눈이 아프신지 힘들어하시는 모습이였다. 그날 처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휴강 해주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날 나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 지금도 P교수님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물어보면 학생들은 강의에 대한 열정을 우선순위로 말하곤 한다.”-학습자 C

2.2 흥미로운 수업

Keller(1999)는 ARCS 모형 중 첫 번째 구성요소인 주의집중(Attention) 즉,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동기요소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어떻게 유발

하고 지속할 수 있는가이다. 즉, 학습자가 궁금한 환경을 탐구하고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17].

학습 중에 가장 먼저 만나는 장애물은 학습자의 무관심이다. 장애물을 만나면 그 다음은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소용이 없다. 먼저 관심을 끌고 흥미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은 학습방법이다. 교과목에 대해 학습자가 부담을 갖지 않고, 흥미를 잃지 않게 하면서도, 다양한 사례를 통한 흥미유발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수업에 대한 학생의 흥미도의 증가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좋은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수자라면 누구나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설계하고자 할 것이다.

흥미로운 수업은 주로 수업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교수 방법과 자료, 매체 등을 활용하여 지적 탐구심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즐거운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알기 쉽고 재미있는 수업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수업 내용을 설명하실 때마다 교수님은 학습내용이 흥미롭도록 생생한 사례나 사진 등을 꼭 제시해 주십니다.”-학습자 D

“교수님의 강의시간에는 웃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 강의시간에 단 한 번도 얼굴에 미소를 머금지 않고 강의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자가 있다? 허,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다양한 몸 개그와 흥미유발소재들로 중무장하시고,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런 웃음이 묻어나는 수업, 정말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학습자 E

“어떤 강의를 듣던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그 시점부터 해당 강의는 좋은 강의가 되고 즐거운 강의가 된다. 그리고 자신의 강의에 흥미유발을 시킬 수 있게 자신 있게! 힘차게! 강의를 진행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자신있게! 힘차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수업은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자 F

2.3 강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

강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요인은 선행연구[6][10]에서도 좋은 수업의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문대학생들 또한 좋은 강의의 특성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조직화하여 쉽게 잘 요약해주는 수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전문대학 학생들은 일반대학 학생들에 비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공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 하고, 학습 욕구나 학업에 대한 흥미도를 가지지 못해 학습 활동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쉬운 사례를 준비하여 강의 하는 교수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은 다양한 수업 방법과 수업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수업으로써 학습자들은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제 사례를 사용하거나 이론적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요약해주는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 사례중심으로 학생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한 번 썼던 수업자료도 늘 수정하시고 보완하십니다.” -학습자 G

“아무리 어려운 용어라도 교수님의 예시와 동영상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광고형식이나 이론적 설명을 그에 맞는 광고자료를 보면서 배우니까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학습자 H

“강의를 들을 때면 외우는 것 보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교수님 또한 수업이 시작되면 당연하듯이 자연스럽게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수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저 학생들에게 교재보다 쉽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님만의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교재를 보며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 하십니다. 그저 우리들은 화이트보드에 있는 것들을 필기하고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교재에 있는 내용은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자 I

2.4 학생들을 배려하는 수업

학교교육현장에서도 교사의 ‘배려’는 오랫동안 ‘훌륭한 교사’, ‘잘 가르치는 교사’를 묘사하는 핵심어로 사용되었다. 애정과 배려를 느끼게 하는 교사의 행동들은 학생들이 보다 차분하게 학습에 몰두하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8].

학습자에 대한 교수자의 배려는 ‘훌륭한 교수자’, ‘잘 가르치는 교수자’를 묘사하는 핵심어 중 하나이다. 이는 학습자를 잘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습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학습자는 교수자가 자신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지각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을 배려하는 수업에 대해 학습자들은 편안한 학습 분위기에서 교수자의 칭찬과 격려 등의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학습자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잠재력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학습에 대한 책임감은 물론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 교수님이 참 좋아요.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가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격려나 칭찬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습자 J

“교수님은 수업시간 중에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데 이 관계대명사로 인해 자칫 딱딱할 수도 있는 대학 강의에서 ‘우리’라는 따뜻한 감정을 무의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수님과의 거리감을 없애 주셨습니다.” -학습자 K

“조별 발표가 마치면, 교수님은 각 조에게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다들 생각보다 잘했다. 기대 이상이다”며 저희에게 큰 용기와 자

신감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교수님께 배운 타인에게 베푸는 세심한 배려와 매사에 애착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로 앞으로 저에게 다가올 역경들을 헤쳐 나가고 싶습니다.” - 학습자 L

2.5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

대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과 이와 관련된 대학의 영향을 탐색하는 ‘대학 효과(college effects)’ 분야의 연구들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대학교육 학습 성과와 관련된 중요한 교육적 경험 중 하나로 간주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19]. 이와 같이 상호작용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의사소통하고 상호간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 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6][10][11][12]에서도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은 좋은 수업의 특징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학습자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수업의 만족도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에 대해 학습자들은 주로 수업의 경직된 구조보다는 수업내용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유연한 의사소통을 통해 참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습득하는 지식이 아닌, 이미 정해진, 그렇게 외우라고 강요만 하는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강의는, 교수님 혼자만의 강의가 아닌 교수님과 학생들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강의입니다.” - 학습자 M

“수업진행을 일방적으로 혼자 진행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수업은 배우고 가르치는 부분이 쌍방향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책만 줄줄 읽어 내려가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이런 수업은 기

역에도 남지 않고 애정도 안가는 수업입니다.” - 학습자 O

“대학의 특성상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일방향적(one-way) 수업방식을 사용하시는데 반하여 교수님께서는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쌍방향적(two-way) 강의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수업은 사소한 것이라도 교수님이라는 사람과 학생들이 벽을 허물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습자 P

2.6 교수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업

많은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인생관이나 이전 경험에서 얻은 교훈 등에서 철학과 가치관을 배운다. 따라서 강의 내용과 연계된 교수자의 경험(성공담이나 즐거웠던 경험 뿐 아니라 실패담이나 힘들었던 경험도 함께)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20].

수업을 통해서 제공되는 지식이나 기술이 단순히 교수자의 지식보유 수준이나 경험에 의존하여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기술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교수자로 하여금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학습자의 사전지식이나 경험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공되도록 돕는다.

교수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 제시 내용을 보면 교수자의 역할모델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수자는 교재에 나와 있는 전문화된 지식이나 추상적 지식을 그대로 전달 것이 아니라, 교수자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시사성이 있으며 학생의 경험이나 실생활과 관련 있는 현실성 있는 소재로 교과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습자의 간접 경험으로 연결시켜 학습내용을 공유하는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 교수님은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취업준비를 하는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주세요.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 학습자 Q

“교수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하는 모든 질문의 답을 교수님의 실무적인 경험을 토대로 성실하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 학습자 R

“교수님은 외식사업창업실무의 실무경험을 저희들에게 거짓 없이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곤 합니다. 직접 창업을 하셔서 실패하고 성공한.. 그런 부분까지.. 모든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저에게는 정말 우리 사회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창업할 때 주의점이라든지 성공 요인, 실패 요인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정말 목요일 외식사업창업실무 수업만이 기다려졌습니다.” - 학습자 S

V. 결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의 특성을 내용 분석을 통하여 핵심 키워드 추출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의 특성은 ‘교수자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수업’, ‘흥미로운 수업’, ‘강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 ‘학생들을 배려하는 수업’,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 ‘교수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업’ 등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좋은 강의의 특성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일반대학과 대부분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구별되는 특성 요인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유사한 특성 중 첫 번째는 교수자의 열정이다. ‘교수자의 열정’은 수업에서의 동기유발에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업에 대한 학생의 흥미도의 증가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좋은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해야 한다. 전체적인 강의내용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가 되면서 따라 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넷째, 학습자는 교수자가 자신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지각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학습자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수업의 만족도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전문대학만의 특성은 ‘교수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수업’이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학습목표와 부합하는 현장의 풍부한 경험 이야기나 교수자 자신의 솔직한 경험담을 토대로 실질적인 내용을 수업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자의 직간접 경험 공유를 통한 관계맺기, 그로 인해 배웠던 교훈을 수업시간에 공유하는 것은 학습와의 래포(rapport)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은 교수자는 지식이나 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의 맥락을 교실 장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의 맥락에 대한 분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쉽게 맥락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활동 과제의 개발은 교수자 경험에 따른 맥락의 질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교수자의 경험유무, 경험수준 그리고 경험유형에 따라 분석되는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수업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수업에 필요한 유용한 경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교수자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규명된 전문대학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의 특성은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교육력 향상을 위한 수업역량 및 교수학습방법, 교수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동일한 교수자의 수업행동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교수자의 수업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수학습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교수별, 계열별 특성에 맞는 교수법 개발 지원을 통한 교수학습 향상 및 수업의 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대학 학생의 학습 능력 저하로 인한 보다 쉽게 가르치고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수업 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교수학습법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효과성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교수법 특강, 세미나, 전문적인 연수 등 교수자의 현장성 강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정 개별 대학의 사례가 수상작을 사례로 분석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어 향후 전문대학 전체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키워드 조사를 통한 항목별 건수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2차원적 해석, 즉 수량적 조사결과로서 각 항목의 단편적인 우열을 따질 수는 있으나 항목별로 전반적인 관계분석에 따른 해석일 수는 없는 한계를 갖는다.

참 고 문 헌

[1] 이정표, 김수연, 박윤희, 손경옥, “전문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연구소, 연구 제2013-20호, p.82, 2013.

[2] 박민정, 함영립, 오두남,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정도 및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333, 2012.

[3] 최길성, 이승희, “전문대학 기초학습능력 향상 방안: D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4호, p.474, 2011.

[4] 차갑부, 박해미, 이승희, 이해선, “전문대학 교수학습연구대회(2002~201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 제2012-25호, p.1, 2012.

[5] 안지혜, 좋은 대학수업의 특성 분석 연구: 인문 사회계열 우수 수업 사례 관찰 연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3, 2012.

[6] 장지현, “학습자의 관점에서 본 대학의 우수 강의 핵심요소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7권, 제1

호, p.271, 2013.

[7] 조벽, 조벽 교수의 수업 컨설팅, 서울: 해냄, 2012.

[8] G. D. Borich, *Observational Skills for effective teaching*, Ohio: Merrill Publishing Company, 1990.

[9] 이은화, 김회용, “좋은 대학수업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 대학생의 관점에서”, 교육사상연구, 제22권, 제1호, pp.123-146, 2008.

[10] 박민정,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 인문학연구 통권 제75호, pp.230-231, 2008.

[11] 윤소정, 이유나, 이상수,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에세이 분석”, 한국교육, 제36권, 제4호, pp.125-149, 2009.

[12] 김수연, “전문대학교육 현장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강의평가 주관식 문항 분석 중심으로”, 201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646-647, 2011.

[13] 장지현, 앞의 논문, pp.269-291.

[14] K. Krippendorff,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Thousand Oaks, USA: Sage Publications, 2004.

[15] B. Berelson,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New York, USA: Hafner, 1952.

[16] E. J. Sass, “Motivation in the College Classroom: What Students Tell Us,” *Teaching of Psychology*, Vol.16, No.2, pp.86-88, 1989.

[17] 켈러, 송상호, 매력적인 수업설계, 서울:교육과학사, 1999.

[18] M. A. Gray, *An Interpretive Analysis of Elementary Conception of Car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1986.

[19] 이정표, 김수연, 박윤희, 손경옥, 앞의 연구보고서, p.45.

[20] http://ctl.kcu.ac/professor/pro4.asp?id=professor_03&mode=view&idx=31&page=2

저 자 소 개

최 석 현(Seok-Hyun Choi)

정회원



- 1991년 2월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 전공(정치학사)
- 2004년 8월 : 동서대학교 MBA 전공(경영학석사)
- 2011년 2월 : 동명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 전공(언론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경영계열 부교수
<관심분야> : 위기관리, 광고활용교육(AIE), PR, 교수법